

공간 속에서 사색과 명상에 잠기다

■ 사진전 리뷰 - 문상운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온 날'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온 날'을 주제로한 사진가 문상운의 작품.

사진가 문상운의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온 날' 전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대구 '갤러리 큐브C'에서 열렸다. 문상운의 사진 앞에 서면 '적막함과 고요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게 된다.

사진은 사물과 사물이 만나고 빛과 사물이 얽혀서 렌즈의 조화가 생성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사진가는 빛을 잘 제어하고 카메라워크에 의해서 자신의 사상을 잘 구현해내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문상운은 '구름'을 주제로 해 구름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풍경을 찍었다. 그는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와 만든 일회적 풍경 속에 적요와 사색을 담아냈다. 담백한 흑백의 사진들이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구름은 고정돼 있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구름은 스스로 모양과 색채를 지니며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문상운의 사진 속 구름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으며, 무심하게 떠 있는 구름이면서 그런 구름이 아닌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미적인 주관과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재구성해 외형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킨 것이다. '땅 빈 공간 속에 홀로 불을 끄고 앉아 있을 때 그 공간은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의 개념을 가지게 되듯이' 문상운의 사진이 주는 공간 속에서 사색과 자유로운 명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풍경(風景)이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인간과 자연,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그 관계성을 찾고 해석하는 것'이라 했다. 작가는 '선상의 풍경' '사유의 풍경' '7번국도' 등 여섯 번의 개인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진이미지들을 그렇게 구축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흰 구름과 안개가 겹겹이 쌓여서 산과 나무가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번뇌망상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불성(佛性)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작가는 '체로공풍(體露金風: 가을바람에 전체가 드러나다)' 이 한 마디를 톡 던지면서 "자연은 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는 것이요,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이 곧 자연을 보는 것"이라 했다. 또 작가는 "예술은 삶의 렌즈로 이해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자연과 인간의 삶에 천착해 구현하려는 문상운의 사진 작업을 기대하면서 갤러리를 나섰다. 장보유(자유기교가)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22일까지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를 맞아 제19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인연 짓기'라는 주제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작품들은 전통불화에서부터 불교적 소재가 가미된 회화와 조각까지 장르를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시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12월 16~22일 열린다. (02)730-5454 이은정 기자

중동, 핏줄처럼 얽힌 우리 삶의 문제

박노해 시인 첫 사진전 '라 광야'展 1월 7~28일 서울 갤러리 M에서



광야의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여인.



시리아 사막길에서 저녁기도를 바치는 이라크인들.



폭격터미에서 살아남은 사나 살흠(13세).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분쟁지역을 꼽으면 사람들은 단연 중동을 꼽는다. 매일매일 외신을 통해 쏟아지는 중동 소식은 아픈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반도와 많이 닮아 있다.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박노해(51)는 중동 현장에서 10년간 촬영한 흑백필름 사진을 공개한다. 박노해 시인의 첫 사진전 '라 광야'展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터키-쿠르디스탄에 이르는 중동 분쟁현장들을 기록한 사진전으로 2010년 1월 7~28일 서울시 중구 갤러리 M에서 전시된다.

박노해 시인은 "한국인에게 가장 멀고, 가장 낯설고, 가장 잘못 알려진 곳이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이라며 "한국과 닮은 중동의 문제는 '세계일화(世界一花: 세계는 한 송이 꽃)'라는 말처럼, 핏줄처럼 얽힌 우리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평생을 노동해방운동가와 시인으로 살아온 박노해가 이역만리 중동을 찾아 그들의 가난과 분쟁의 현장에 뛰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인이 10년간 촬영한 필름은 총 4만여 컷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라 광야'展에는 수개월간 작업을 거쳐 고르고 고른 37점만이 전시된다.

이기명 갤러리M 관장은 "기획자로서, '사진가 박노해'의 작업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번 사진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박노해의 이번 전시는 시적 울림을 통해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설명했다.

박노해 시인은 참혹한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과 극적인 이미지를 향해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먼저 그 사건이 발생한 삶의 뿌리로서 머물러 그들의 삶을 렌즈에 담아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흐느낌이 들러올 때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충성이 그치면 아이들과 바람 빠진 공을 차며 놀아 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삶을 회고했고 갈망했다. 그 희망은 기도라는 성스러운 행위로 이어졌고, 그것은 아비규환 속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했다. 이것이 박노해 시인이 4만여 필름을 소진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폐허 터미에서도 협동하며 일어서는 강인한 생활력, 서로 나누고 보살피는 인간의 위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릎 꿇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광야의 사람들에게 저는 다만 경외의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백방에서 흐르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한 잔 맛으로 되고 말듯이 네 가지 종족의 계급이 출가해 불제자가 되면 모두 석씨가 된다(百川入海 同一鹹味 四姓出家同一釋氏)는 말이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이때에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계일화를 마음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02)2277-2438 이은정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공장,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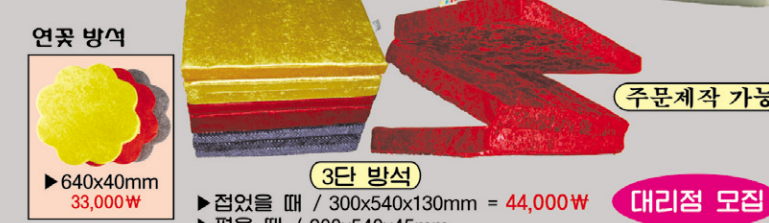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친환경적이며, 인체공학적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중, 제20-2009-0015109호

기능성 접이식 방석 (유대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 031-594-7488
FAX : 031-594-2054
농협 : 204074-52-079679 김경기